

지역 매 아리

부안군, 올해 첫 모내기 시작

부안군은 지난 30일 보안면 고광음(63)씨 농가의 유천리 일원 4ha의 논에서 올해 첫 모내기가 실시됐다고 밝혔다.

이번 첫 모내기는 극조생종인 진옥벼로 특별한 기상이면 없이 적기 영농이 추진된다면 추석 전인 오는 9월 상순에는 햅쌀을 맛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부안군은 이날 첫 모내기를 시작으로 오는 5월 한달간 본격적인 모내기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했으며 본격적인 모내기철을 앞두고 벼농사 필수 영농자재인 못자리 상토와 병해충 공동방제약제, 유기질비료 등 지원사업을 추진해 적기영농을 지원할 계획이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모내기 현장을 방문해 이른 새벽부터 모내기에 여념이 없는 농가를 격려했다.

권익현 군수는 "이번 첫 모내기부터 앞으로 있을 지역내 모내기 작업이 별탈 없이 잘 이뤄져 모든 농민들이 풍년을 맞보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며 "쌀 소비량이 줄어들고 있는 시대의 흐름 속에서 고품질 쌀 생산 등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 미래전략자문단과 발전 방안 정책간담회 가져

정읍시는 최근 민선 7기 주요 현안을 해결하고 시정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정읍시 미래전략자문단'과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자리에는 유진섭 시장을 대신해 김인태 부시장과 신동화 지역자문단장을 비롯하여 12명의 지역자문위원이 참석했다.

미래전략자문단은 정읍시의 주요정책에 대한 자문이나 제도개선 등 시정추진 방향과 미래전략을 설정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산업, 환경, 문화, 농업, 도시건설 등 각 분야에 13명의 전문 지역위원들로 구성돼 있다.

간담회는 박복만 정읍시 기획예산실장의 민선 7기 주요 현안사업과 추진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시작했다.

이어 정읍시 주요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정읍시 발전 방향에 대한 논의 등 정읍시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김 부시장은 "지역 현안 해결 및 국·도비 예산확보 등 지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함께 공조하고 협력하여 시민이 행복한 정읍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신 단장은 "간담회를 통해 나눈 의견들을 잘 수렴해 정책에 반영되길 바라며, 우리 자문단도 적극적으로 실용적인 정책제언으로 시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지난 30일 유기상 고창군수와 관내 4대 종단 대표들이 고창군 천주교 만남의 집에 모여 민·관 실천협약을 진행했다.

사회적 공감대 확산에 주력

유기상 고창군수·지역 4대 종단, 생명존중·나눔기부·인구늘리기 민관 실천협약 체결

고창군과 지역 4대 종단이 생명존중과 인구늘리기 등 지역 문제 해결에 손잡고 나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30일 고창군에 따르면 이날 유기상 고창군수와 관내 4대 종단 대표들이 고창군 천주교 만남의 집에 모여 '생명존중, 나눔과 기부, 인구늘리기' 민·관 실천협약(1호)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선운사, 대산 덕전교회 최기원 목사, 고창성당 김대영 신부, 원불교 고창교당 정법일 교무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고창군은 ▲생명존중 사상 교육 및 각종 사책 지원 ▲나눔과 기부문화 확산으로 촘촘한 복지 실현 ▲출산인식전환 교육과 정책 홍보 및 인구증대 시책 발굴 ▲기관·단체의 인구 늘리기 추진사업에 협조 지원하기로 했다.

4대 종단은 ▲자살 예방, 비폭력 운동 캠페인 ▲나눔과 기부문화 확산을 통한 '행복 고창' 운동 ▲자생적인 인구늘리기 실천운동 확산 ▲'행복한 출산·양육' 종교 내부 분위기 조성 ▲종교인들의 고창군 거

주 미진입자 주소갖기 운동 등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고창군 관내 4대 종교인은 2만여명으로 군 전체 인구의 1/3을 차지해 사회적 공감대 확산에 과감력을 클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고창군 관계자는 "지역의 문제에 대해 지역민과 행정이 공감하고, 서로 유력해 해결방안을 찾아가는 것에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기관·단체·기업 등을 대상으로 릴레이 방식으로 '민관 실천협약'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 현수막 지정계시대 관리 민간위탁 계약 체결

정읍시와 (사)전북도 옥외광고협회 정읍시지부부는 최근 현수막 지정계시대 운영·관리에 대한 민간위탁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식에는 유진섭 시장과 김영택 옥외광고협회 정읍시지부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시는 위탁자 공개모집과 민간위탁 적격자 선정 심사를 통해 옥외광고

협회 정읍시지부를 최종 선정했다. 옥외광고협회 정읍시지부는 다음 달 1일부터 2022년 4월 30일까지 3년간 현수막 지정계시대 운영·관리를 맡게 된다.

전문성 있는 민간에서 위탁 관리해 다양하고 대형화되는 옥외광고물을 안전관리하고 한정된 행정력을 보완해 효율성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농촌일손돕기 지원창구 본격 운영

정읍시가 본격적인 영농기를 맞아 농촌의 일손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노동력 확보가 어려운 농가를 대상으로 농촌일손돕기에 적극 나선다.

시는 5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농촌일손돕기 집중 추진 기간으로 정하고 농축산과와 읍면동에 '농촌일손돕기 지원창구'를 설치했다. 일손 자원봉사자와 도움이 필요한

농가를 연계해 적기·적소에 인력을 투입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또 모든 부서에서 1회 이상 농촌일손돕기에 참여토록 했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과 유관기관, 사회단체에 농촌일손돕기 협조를 요청해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농촌일손돕기는 발작을 파종과 육묘 이식, 매실·복분자 수확, 과실

수거, 비닐하우스 철거, 폐비닐 수거 등 기계화가 어려운 농작업을 집중 지원한다.

또 고령농과 질병 상해농, 부녀농, 독거농, 기초생활 수급자 등 농작업이 어렵고 노동력 확보가 취약한 농가를 우선하여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시민과 기관 단체가 적극 참여해 농번기에 농가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농촌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사랑상품권'으로 정읍경제 살린다

시, 200억 규모로 지류·모바일상품권 11월 발행 예정

정읍시가 인구감소를 막고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200억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장기화 되고 있는 경기 침체와 지역인구유출을 막고 지역자본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지역 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실질적 소득을 높인다는 전략이다. 이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킴으로써 시민 모두가 잘사는 사회 구조를 만들고자 마련한 대안이다.

시에 따르면 총 200억원 규모의 지류와 모바일로 발행되며 내달 중 조례 제정을 한다.

7월 금융기관 협약 및 가맹점 모집을 진행하고, 9월 관리시스템 구축 및 보급, 10월부터 상품권을 제작할 예정이며 11월 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역화폐는 개인이나 법인, 단체가 자발적으로 구매하는 일반 발행과 공무원 복지포인트, 취업장려금, 출산장려금 등 각종 복지지원금을 지급하는 정책발행이 있다.

시는 규모에 따라 발행금액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유진섭 시장은 "지역화폐는 시민과 시민, 골목과 골목을 이어 준다는 것에 의미가 있고, 지역경제를 살리는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지역화폐를 통해 시민 모두가 잘사는 신명나는 정읍을 만들어가며 지역 내 인구유출과 자본의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자본의 선순환 경제를 구축해 자본이 일부에 편중되지 않고 공정한 경쟁질서를 만드는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국내 화장품전문브랜드 '제이준 코스메틱'이 고창수박 추출물이 함유된 '선쿠션'을 출시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이젠 피부에 양보하세요"

제이준 코스메틱, 고창수박 원료로 선쿠션 출시 '인기몰이'

대한민국 명품과일 고창수박이 이젠 식품을 넘어 화장품까지 진출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지난 30일 고창군에 따르면 국내 화장품전문브랜드 '제이준 코스메틱'이 고창수박 추출물이 함유된 '선쿠션'을 출시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워터멜론 하이드로 선쿠션'은 '고창산 수박'에서 나온 추출물과 피부에 보습을 더해 주는 수박씨 오일을 배합한 워터멜론 폼플렉스가 함유돼 피부를 진정시키고 보습효과가 있어 피부를 촉촉히 유지하는데 도움을 준다. 제이준 코스메틱 관계자는 "수박

씨오일은 영국 텔레그래프지가 선정한 세계 5대 슈퍼 푸드인 수박씨를 압착하여 만든 오일이다. 입자가 작아 모공을 막지 않고 피부에 흡수되어 모공 청정 및 수축에 효과적이다"고 강조했다.

고창수박은 10년 연속 국가브랜드 대상에 차지할 정도로 대한민국 수박의 대명사다. 특히 지난해는 '슈스타벅스코리아'와 함께 고창수박을 활용한 '수박 블렌디드' 음료를 출시해 큰 인기를 끌기도 했다.

고창군은 이번 명품 고창수박을 활용한 화장품의 인기가 농생명식품산업 활성화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Advertisement for Gangsanmyeongju Mulberry Wine, featuring product images, descriptions, and gift set options.